전남 구제역 감염소 76% 암소, 왜? … '백신기피' 모락모락

확진 54마리 중 암소 41마리…12농장 중 8농장 암소만 감염

일부 농가 "유·사산 우려는 돼"…지역접종률 낮은 점도 문제

전남 축산농가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감염된 한우 10마리 중 8마리 가량이 암소여서 그 배경에 궁금증이 일고 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영암 도포면의 한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이날 현재 감염농가는 영암 11곳, 무안 1곳 등 모두 12곳으로 늘었다.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소는 54마리, 살처분된 소는 397마리에 이른다. 시·군 단위 첫 발생농장은 전체 사육두수를, 이후 추가 발생농가는 양성축만 살처분됐다.

확진 판정된 한육우 가운데 41마리가 암소, 13마리는 수소다. 비율로는 암소가 76%, 수소가 24%로 암소가 3배 가량 많다.

전남지역 전체 한우 사육두수 60만 마리 중 암소가 68%, 수소가 32%인 점을 감안하면 암소 감염률이 사육 점유율보다 10% 포인트 가까이 높은 셈이다. 12개 감염 농가 중 암소만 감염된 농장이 8곳에 이르고 암소 16마리가 한꺼번에 감염돼 20여 마리가 살처분 된 농장도 있다.

축산업계 안팎에선 암소 '백신 기피설'이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 축산 농민은 "백신을 접종하면 암소의 경우 유산확률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있어서 솔직히 주저하는 농가들이 간혹 있다"고 말했다.

"임신 말기에 백신을 잘못 투여했다간 100% 조산 또는 사산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수정 후 임신 5개월 이상 지나 말기(280여 일)까지는 '유예축'으로 분류해 출산 후 수시 접종으로 백신을 투여하다 보니 공백기가 있을 수 있고 백신 면역이 떨어진 시점과 겹칠 경우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남 보성의 한 농장에서 공수의사가 한우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사진 = 보성군 제공

실제로 영암, 무안 구제역의 경우 4월 일제접종 시즌을 코 앞에 두고 연쇄 감염이 발생한 사례다.

영암 지역 백신접종률이 전국 기초 지자체 가운데 하위권에 머문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암소는 임신시기에 따라 접종 유예시간이 있고 농장주들의 우려도 없진 않지만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수소와 마찬가지로 1년에 두 차례씩 정기접종을 빠짐없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권철 기자

전 세계 '홍역' 유행, 국내서도 잇따라 확진

"잠복기 7~21일, 발열·발진 등 의심 증상 있을 땐 병원 가야"

호흡기 감염병인 홍역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7명의 확진자가 나오며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호남권질병대응센터 등 보건당국에 따르면 광주의 한 병원에 입원한 환자와 가족 6명, 제주 지역에서 1명 등 총 7명이 홍역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역학 조사 중에 있다.

주소지 기준으로 광주 2명, 전남 4명, 제주 1명이다. 나이별로는 1세 미만 3명, 20대 2명, 30대 2명으로 이들은 영유아의 부모 등 가족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당국은 광주·전남 감염 사례의 경우, 이들 중 한 가족이 최근 베트남에 다녀왔으며 영유아가 발열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감염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해당 병원에서 접촉한 영유아와 보호자, 병원 관계자 등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모두 치료받고 현재 건강을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감염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밀접 접촉자에 대한 역학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제주 지역 감염자는 베트남을 거쳐 제주도 여행을 한 외국인 관광객으로 현재는 고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 지역에서 홍역 감염은 지난 2019년 2명 발생 이후 6년만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여행객을 중심으로 홍역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청은 "여행 전 홍역 예방백신(MMR,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을 2회 모두 접종했는지 확인하고, 2회 모두 접종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엔 의료기관을 방문해 최소 4주 이상 간격으로 2회 접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여행 중에는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입국 시에는 발열 또는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검역관에게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만약 여행 후 홍역 의심 증상(잠복기 7~21일)이 나타난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피하는 등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해 의료기관에 방문하고 의료진에 해외여행력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베트남에선 올 초부터 약 4만명의 홍역 의심 환자와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특히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유명 관광지 다낭 등에서도 홍역 의심 사례가 빠르게 느는 추세라 주의가 필요하다. /뉴시스

초등 돌봄 중식, 광주 학부모에 물어보니… 89%는 "만족"

2025년도 중식 사업 지속 추진 희망은 '97%'

"공급업체 선정방식·위생관리 여건 개선해야"

광주교육청이 방학 중 진행한 2024학년도 초등 돌봄교실 중식 제공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교육청이 진행한 설문 조사에 참여한 학부모 1068명 중 89%가 중식 사업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맛과 품질·양·섭취 등 개별 항목에서도 80%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2025년도 중식 사업 지속 추진을 희망하는 응답자는 97%에 달했다. 사업 개선 사항으로는 메뉴 다양성 확대(42%), 영양 균형 강화(32%), 보온 유지 대책 마련(31%), 음식 맛 개선(19%), 잔반 처리 방법 개선(6%)을 꼽았다.

시민모임은 "맞벌이와 취약계층 가정의 어려움을 살피고 학생들에게 따뜻한 한끼를 제공하는 중식 사업이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만 시민모임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방학 중 초등 돌봄교실 중식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공급업체 선정 방식과 위생 관리 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광주교육청은 맞벌이와 취약계층 부모의 고충을 해소하고 학생들에게 따뜻한 중식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초등 돌봄교실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중 무상 중식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염선호 기자

매크로 돌려 야구·공연티켓 사들여 암표… 6400만원 꿀꺽

온라인 사이트에서 명령어 자동 반복 입력 프로그램 '매크로'를 이용해 프로야구 관람권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웃돈까지 얹어 판매한 암표상들이 검거됐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불법으로 대량 구매한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입장권·공연 입장권을 웃돈을 받고 판매한 A(30대)씨 등 3명을 국민체육진흥법·공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입장권 210매, 유명 트로트 가수 콘서트 입장권 19매 등 총 229매를 판매해 모두 6400만원 상당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또래 지인인 이들은 구입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각각 표를 무더기로 사들인 뒤 온라인 장터에서 시세보다 2~3배 가량 비싸게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광주경찰은 지난해 광주에서 열린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경기 전후 인터넷에서 암표 매매가 성행하자 온라인 관람권 판매 실황 등을 집중 모니터링했다.

경찰은 온라인 암표 광고에 대해서는 상시 추적하고 현장 암표 판매에 대해서도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주말 광주에서 열리는 프로야구 개막전에 대비해 사복경찰·기동순찰대를 경기장 주변에 배치,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암표 판매는 정상적으로 관람하려는 관객들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티켓 사기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암표는 사지도 말고 팔지도 않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며 "철저한 단속으로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경찰은 지난해 한국시리즈 기간 중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돈만 가로챈 사기 피의자 5명(113건)을 검거·송치했다. 현장 단속을 통해 암표상 1명도 검거하여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했다. /송현근 기자

초중고, 5·18 체험 교육하세요… '오월 버스' 100대 달린다

광주시교육청이 지역 학생들을 위해 '오월 버스'를 운영한다.

2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오월 버스'는 5·18민주화운동 체험교육 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시교육청은 내달 1일부터 5월30일까지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오월 버스' 100대를 운행한다.

5·18 사적지 탐방 프로그램 계획서를 제출하면 학교당 최대 4대, 최대 6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사적지 중 국립5·18민주묘지는 반드시 방문해야 한다. 전일빌딩 245, 5·18민주화운동기록관, 5·18자유공원 등지를 자유롭게 선택, 방문 예약을 한 뒤 '오월 버스'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21일까지 민주인권교육센터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시교육청이 지난 6일부터 희망학교를 신청받은 결과 현재까지 41개 학교가 82대의 오월 버스를 신청했다.

시교육청은 지속적 세수 결손에 따른 강도 높은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오월 버스' 운영, 5·18 계기 교육 자료 개발, 찾아가는 5·18 세계화 프로그램 등 학생 체험 중심 5·18 프로그램을 신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오월 버스를 통해 학생들이 교실을 넘어 역사적 현장에서 5·18민주화운동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5·18 교육 내실화를 통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민규 기자